

꿈에 본 듯한 송이도 아름다움, 이젠 현실로 만나다

알록달록 몽돌이 아름다운 섬 송이도. 지금까지 송이도는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섬이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송이도에 가려면 흥농을 계마항에서 하루에 한 번 다니는 배를 타야했다. 당일치기 여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배 시간도 몰때에 따라 들쭉날쭉해 어떤 때는 오후 늦게나 배편 운항이 가능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접근도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염산면 항화도에서 오전 8시 오후 2시 30분 하루 두 차례 직항 노선이 생겨 1시간 30분 정도 배를 타면 송이도에 도착한다. 송이도에서는 오전 9시 50분 오후 4시 20분 두 차례 나오는 배가 있어 오전에 들어가 섬을 돌아보고 오후에 나오는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해졌다.

송이도가 꿈에서 본 듯한 환상의 섬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아름다운 섬으로 변모하고 있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송이도에 20억원을 투입해 해안주택 지붕과 담장 경관개선, 꽃길산책로, 몽돌 전시실, 송이도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등으로 매력있고 아름다운 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우선 16억원을 들여 송이도의 최대 관광지인 몽돌을 이용한 전시공간을 만든다. 관광객에게 추억과 감동이 있

여객선 하루 2회 왕복 운항 접근성도 크게 나아지고 지붕·담장 정감있게 새 단장 꽃길산책로·조형물 등 조성 매력 넘치는 어촌마을로

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송이도를 랜드마크 할 조형물이 설치된다.

여객선 대합실을 정비하고 포토존 등을 조성해 어촌마을의 아름다움을 살려 차별화된 섬으로 가꾸어 간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경관개선사업에 2억원을 투입한다.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채와 소재를 활용해 마을 담장과 지붕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등 정감이 있는 어촌마을로 만들 계획이다.

또 꽃길 산책로 조성에도 2억원을 투입해 관광객과 마을 주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송이도를 알리는 관광지원과 마케팅 요소로 활용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에 관광자원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어업 이외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도서 지역 경제 활성



영광군은 올해 송이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 지붕과 담장을 개선하고 몽돌을 활용한 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관광 활성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송이도 전경을 찍은 항공사진.

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31일부터 항화도~송이도 구간에 1일 2회 왕복 운항하는 신규 여객선이 투입되면서 섬 접근성이 개선되고 섬 주민들의 육지 1일 생활권이 보장됐

다"며 "현재까지 지난해 보다 배 증가한 4600여명의 관광객들이 송이도를 찾았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 스포츠마케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잇따라

영광군이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시설을 갖춘 '영광스포티움' 준공 이후 매년 종목별 전국대회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성과를 거둬 스포츠 대표 선도시로서의 명성을 다져가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올해도 17개 종목 전국도 단위 및 전지훈련 등 19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6월 현재 축구와 유도,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전국대학태권도대회,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등 전국 규모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또 다음달 2일부터 16일간 제14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7월 21일부터 13일간 제73회 전국중별농구대회 등 굴직한 대회를 남겨두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서 영광군은 2014년 민선 6기 출범 이후 각종 전국·도단위의 대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민선 6기 이후 2018년 현재까지 81개 대회에 57만여명이 영광군을 다녀감에 따라 약 58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대회 기간 중 경기장 시설 준비 등 원활한 경기 운영 뿐만 아니라 선수와 대회 관계자를 비롯한 방문객들의 체류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 시설이나 식당 안내 등 편의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송이도 표지석

멋스런 몽돌해수욕장에 촛대·물결바위 등 볼거리 풍성

송이도는

송이도(松耳島)는 소나무로 둘러싸인 섬의 형태가 사람의 귀처럼 생기고 송이버섯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광군 낙월면에 속한 송이도는 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송이도에 도착하면 '아름다운 섬 송이도' 표지석이 방문객

을 맞이한다. 표지석 오른쪽에 독특한 해변 경관을 자랑하는 몽돌해수욕장이 있고 그 너머로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해수욕장이라면 보통 하얀 모래사장을 떠올린다. 하지만 송이도 몽돌해수욕장은 모래가 없다. 작고 하얀 몽돌로만 이루어져 있다. 크고 작은 돌들이 오랜 세월 파도에 부딪히며 다듬어져 보기에 멋스럽고 맨

발로 걸어 다녀도 전혀 발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다. 천연 지압까지 해준다.

몽돌 해변을 제외한 전 해안이 해식애로 둘러싸여 물결바위와 촛대바위, 거북바위 등이 널려있어 또 다른 볼거리도 제공한다. 송이도에서는 농어, 민어 등 각종 신선한 횡감은 물론 꽃게탕과 매운탕을 맛볼 수 있으며 갯벌 체험은 물론 바지락과 동죽, 백합, 맛조개를 채취할 수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가마미해수욕장 내달 13일 ·송이도 21일 개장



가마미해수욕장.

칠산바다를 품은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이 다음달 13일 개장한다. 송이도는 21일 문을 열 계획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지난 21일 목포해양경찰서와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해수욕장 관련 주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가마미해수욕장은 7월 13부터 8월 19일까지 (38일간), 송이도해수욕장은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23일간) 운영되며 해변가요제와 해변물총축제, 해변 버스킹, 장어잡기, 조개잡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 개최될 예정이다.

군은 유관기관과 협력 20여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투입해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파리 등 유해생물

을 제거하고 이안류 발생과 같은 기상 이변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마미해수욕장은 반달모양의 백사장과 넓게 드리워진 푸른 송림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야외 물놀이 시설과 오토캠핑장(카리반), 야외 캠핑 데크 시설 26면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4만여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또 해양수산부 선정 아름다운 섬 100선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송이도해수욕장은 오랜 시간 파도가 만들어낸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약 1km정도 이어져 있어 바닷물이 드나들 때 몽돌을 스치는 경쾌한 파도소리가 일품인 관광명소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